

한마음선원 대행선 연구원이 6월 17~18일 안양본원서 개최한 묘법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에서 청중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행선연구원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 국제학술대회**

# DAY 2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연구실장 혜선)은 6월 17~18일 양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5명의 국내외 비구니 스님과 석학들이 참여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세계 각국 비구니 승가의 역사와 현황, 과제를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정리=신성민 기자

## 개인주의 속 비구니 공동체 재건 '화두'

**본각 스님**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



"승단 내 개인주의 문화가 짙게 드리웠지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 어떻게 공동체와 공동체 정신을 재건하느냐에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에서 지난해 진행·발표한 '비구니 스님의 수행환경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찰 주지 스님들은 당면한 어려움으로 '변하는 불제자들의 신심에 따른 법회 운영'을 36.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재정수입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31.8%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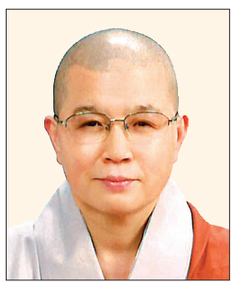
본각 스님은 "신도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스님들은 고착화 상태"라며 "스님들 스스로 자질이 향상돼야 하고 상호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본각 스님은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젊은 스님들은 어른 스님에 대한 시봉과 사찰 소임을 희생으로 여기는 반면, 법납 높은 스님들은 젊은 스님의 자질과 공동체 정신 부족을 탓한다"면서 "앞으로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상호 배려와 안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구와 비구니 간 양성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본각 스님은 "한국불교 종단 내 성평등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처님 계율의 근본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 현대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행선 접할 공인교육기관 설립 필요"

**혜선 스님**

**'한마음선원의 미래 방향'**



생활참선 수행도량 한마음선원의 발전 방안으로 대행선을 부담없이 접할 학교 설립과 대행선 연구 체계화, 국제화가 제시됐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은 '생활참선 수행도량, 한마음선원의 포교현황과 미래의 방향'을 통해 한마음선원 창건주인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행장과 남기신 업적 등을 분석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혜선 스님에 따르면 대행 선사는 어릴 적 험난하고 처절한 삶에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세상이 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가' 등의 의문을 가졌고, 내면으로 침잠·사유해 마침내 스스로의 불성을 발현하고 대자유인이 됐다. 선사는 세상 모든 이들이 고(苦)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길 발원하며 생활참선 수행도량인 한마음선원을 1972년에 개원했다.

혜선 스님은 한마음선원 미래 발전 방안으로 △학교 설립 △대행선 연구의 체계화·대중화 △대행선 국제화를 제시했다.

스님은 "사찰이나 종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비불자나 타종교인들이 부담없이 대행선을 접할 수 있는 공인교육기관인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활용해 마음공부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면 인연닿는 모든 이들에게 정신 발전의 길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행선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선센터 건립과 영문학술지 발간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놨으며, 대행선 연구의 체계화·대중화를 위해서는 대행선 연구원의 학술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비구니 출가 급감… 차별적 출가문화 보완을"

**김응철 교수**

**'한국 비구니 승가의 활동유형'**



급감하고 있는 한국 비구니 출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출가문화와 불안정한 노후생활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한국 비구니 승가의 활동 유형과 미래 방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비구니 출가자의 급감은 한국 비구니 승가의 위험 요소이다. 조계종 여성행자는 2018년 52명, 2019년 46명, 2020년 39명으로 급감했다.

김 교수는 비구니 출가자 급감 원인으로 차별적인 출가문화와 불안한 노후를 꼽았다. "다수의 비구니 스님들은 능력에 맞게 적절한 소임들이 주어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를 마치면 소임을 보며 함께 살 수 있는 사찰이나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교육기관 등이 비구 스님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도 차별적 출가 문화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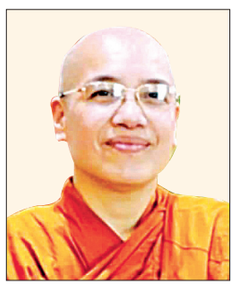
김 교수는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국비구니회와 각 종단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비구니 승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영역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재가불자 조직 활용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등 사찰 운영 방법의 일대 전환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비구니 승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찰 운영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전문 포교사 제도를 활용해 비구니 스님들이 전법교화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승·테라와다·걸사파 등 베트남 비구니승가

**류팝 스님**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발전'**



베트남 불교에서 남성 출가자보다 여성 출가자가 10배 가량 더 많은 정도로 비구니 승가의 위상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나타 비구니사원 주지 류팝 스님**은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설립과 발전'을 통해 베트남불교에서 비구니 승가의 역사와 현황을 조명했다.

류팝 스님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불교에는 대승불교, 테라와다(상좌부 불교), 걸사파 등 세 종파가 있고, 이들 모두 각자의 전통에 따라 비구니 공동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세 종파의 비구니 승가는 모두 '전국 비구니 승가'로 통합돼 있다.

걸사파에는 뛰어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배출돼 베트남불교승가회에서도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팝 스님은 "여성출가자의 수가 남성출가자의 10배이며 불교교육 과정과 대학을 열면 항상 비구니 학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고 소개하며 "많은 여성출가자들은 학문을 추구하거나 사회복지 활동에 동참한다. 이러한 활동이야 말로 보살도를 수행하는 자비 정신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 국정 협조자, 미얀마 여성 출가자

**카와나미 히로코**

**'미얀마 여성 출가자 미래 전망'**



**카와나미 히로코 영국 랭커스터대 교수**는 '미얀마 여성 출가자: 유산의 계승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미얀마는 여성 출가자 수가 2019년 기준 6만 5000여 명으로 단일국가 중 가장 많다. 이들은 모두 미얀마 종교부 종교사무국에 등록돼 있다. 미얀마 여성출가자들은 비구니 계맥 복원에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2003년 한 딸라신이 미얀마 승가에 알리지 않고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후 논쟁이 벌어졌지만 아무 결실없이 끝났다. 그 이후 이들은 계맥 복원을 굳이 알리지 않고 있다.

여성출가자들은 소수 민족 동화 정책 등 미얀마 국정의 협조자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1992년 시작된 불교 명예 타이틀 수여는 현재까지 이어지는데 매년 20명의 여성출가자들이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고 시상대에 오른다.

카와나미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높아지고 있는 여성출가자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 열망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 국제 연대로 비구니 계맥 복원하다

**지하니 드 실바**

**'분파주의에서 화합으로'**



**지하니 드 실바 스리랑카 사바라가무와 대학 강사**는 '분파주의에서 화합으로: 스리랑카 비구니계의 전망'을 통해 단절된 비구니 계맥을 어떻게 복원했는지를 살폈다. 스리랑카 비구니 계맥의 복원은 1988년 캘리포니아 서래사에서 열린 비구니 수계식이 시작이다. 대만 불광산불교국제기구가 후원한 이날 수계식에는 5명의 스리랑카인 여성출가자가 수계를 받았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이들을 비구니로 인정하지 않았다.

1998년 대만 불광산사는 보드가야에서 두 번째 국제 비구니 수계식을 준비했고, 이에 수만갈라 스님은 10명의 사미니 보드가야로 보내 비구니계를 수지토록 했다.

비구니 계맥이 복원되고 비구니 수계 훈련센터가 늘어나자 비구니 승가는 담불라, 나우갈라, 데칸두왈라로 나눠졌다. 이들 계파들은 2018년 협력을 위해 '전국비구니대회(AIBC)' 창립했다. AIBC는 대중공양, 가사불사 외에도 많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 신도가 인정한 태국 비구니 승가

**카카낭 야바프라바스**

**'태국의 비구니: 승가와 사회'**



**카카낭 야바프라바스 태국 탐마삿트대학 강사**는 '태국의 비구니: 승가와 사회, 상황'에서 태국 비구니 승가의 시작과 현황을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비구니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안적 출가 형태를 취하는 데 이를 '매치(mae chi)'라고 한다. 매치가 된 태국 여성은 8계나 10계를 지키며 삭발하고 흰옷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사찰에 거주하지만, 일부는 자치적인 여성사원에서 살기도 한다. 오랫동안 존재했고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여성출가자 그룹이지만, 샤프란 승복은 입을 수 없다.

카카낭 야바프라바스 강사는 "태국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비구니들이 획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본인들은 비구니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그 지역 신도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태국 비구니 승가의 행동, 카리스마, 사회와 불교에 대한 기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